“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를 읽고

 식품영양학과 문희원

 몇 일 전 수업시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회사에서 남자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추천할 때 남자 같은 여자애가 있다고 추천한다. 이게 옳은 것이 아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니 너희가 더 잘해서 생각을 바꿔라.” 회사에서 남성을 더 원하는 이유는 회사 일에 대한 책임감(충성심)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 얘기를 들으며 든 의문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남자가 더 책임감을 갖는다고…? 책임감을 판단하는 회사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게 되다 보면 가정에 조금 더 신경 쓴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 그것이 회사에 대한 책임감과 연결되는 걸까… 그렇다면 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여자 남자 둘 다인데, 가장은 남성이나 세세한 가정의 일 즉 집안일 등 “집사람”의 느낌이 나는 역할은 여자가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사회 생활, 회사 안에서의 조직생활의 주체가 남성인 걸까…아직도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의 시기가 되면 직장에서 눈치 보는 것일까,,,왜 남자 같은 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 남자 같은 것은 무엇이고 여자 같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의 꼬리는 끝이 없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전쟁을 해서 영토확장 등 무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만큼은 젠더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했다. 남성의 생물학적 특성이 우월성과 권력을 나타낼 수 없는 사회다. 구식 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 나야 한다. 단순한 사람 차이일 뿐, 더 이상 사회의 관습이 젠더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규정할 수 없다.

 즐겨 봤던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울면서 “이건 여자 짓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 이후로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울면서 위로 받고 싶어하는 것이 여자 만의 행동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았고 ‘짓’은 주로 좋지 않은 행위나 행동을 이를 때 쓰는 말인데 이 단어를 붙였다는 것이 거슬렸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장면을 작가는 의도하였으나 “여자 짓” 이라는 단어가 몰입을 방해했던 것 같다. 이렇듯 우리 생활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젠더의 역할, 차별이 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젠더에 관한 문제를 여태까지 못 느낀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깨 달았다. 우리 생활엔 성 차별적인 사고나 발언이 난무하고 우리는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풍토, 즉 문화에 물들어 문제의식을 고취하지 못하고 순응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최근 me too, 일처럼 누군가가 용기내서 말해야 된다는 사실도 어이없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말하기 전까지 아무도 문제로 삼지 않았다. 나 또한 문화에 익숙해져 소극적인 태도로 살고 있었음에 반성하게 되었다. 글쓴이의 주장처럼 사회 문화 현상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 문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떠한 사회적 역할도 포기하지 않고 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의식이 고취되길 바라며 나도 페미니즘(성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 사고를 잊지 않고 살 것이다.